

어호와 께 능치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지난 평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벽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교회입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특새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해가 거듭될수록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다음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한국교회를 넘어 메마른 열방에까지
거룩한 부흥의 물결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해
이 민족이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섬기며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후 2026년 10월 21일(수), 특새 후집회 중에서

TODAY'S PRAYER

성령의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영혼과 육신과 가정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 1 주여! 특새로 나아온 모든 영가족의 아픔과 짐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사, 성령의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고 절망의 눈물이 기적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 2 세우신 강사님(김지훈 목사, 미첼 리 목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보혈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케 하사, 증거되는 생명의 복음 앞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상한 심령마다 전인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3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분열과 갈등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이 민족을 하나되게 하는 거룩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진: SRC

특새 강단 아카이브



망해도 계속되는 약속 (열왕기하 25:27-30)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시편 119:169-176)

데이비드 가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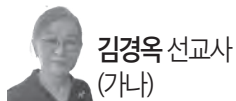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 놓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계명과 그분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홍재훈 (중동)

끊임없는 분쟁과 불안이 가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나 이번 특새를 통해 부여되는 **이 지역을 뒤덮고, 철저히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



김경옥 선교사 (가나)

사랑의교회 특새의 뜨거운 은혜로운 예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특새를 통해 은혜를 누리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 저를 붙드시고 사명을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33-50 비전'의 주역 사랑의교회 주일학교



김하라 (유년부)

화성에서 엄마랑 교회로 오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 기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김지은 (초등부)

영가족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수민 (다윗중등부)

깊은 말씀과 높은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박찬울 (다윗중등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새에 참석하여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예성 (고등1, 2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학교 기도모임의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혜원 (고등1, 2부)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교회 특새에만 있는 한 걸음이

강미현A 권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강단에 앉아 매일 이 감동을 누리고 싶습니다.

구소영 권사

프로는 상상한 대로, 아마추어는 걱정만 대로, 강단 초대 받은 우리는 변화와 기적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김지영H 권사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종순 권사

은혜받는 데는 선수가 돼라! 지금까지 제 삶의 물맷돌은 바로 특새였음을 고백합니다.

윤희숙 권사

특새 끝까지 주님의 압도적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겠습니다.

이경란 권사

강단초대의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요, 최고의 VIP석입니다.

주은영 권사

강단에 올라오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열방이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강단 초대



권혁남 순장

하나님께서 제 간절히 읊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김혜영N 순장

은혜의 현장을 강단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정원 순장

동굴 기도로 강단에 앞드릴 때 각 가정을 살리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을 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글로벌에 울려 퍼진 깊은 말씀, 높은 찬양, 뜨거운 기도

선교사

독한 중동 땅에서 “여호와께 나”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저희 가정과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이승우, 허정수 선교사 (KH국)



사랑의 교회를 통해 받은 말씀과 제자훈련의 은혜는 저희 사역의 든든한 기초이자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사랑의교회에 부어주신 깊은 말씀과 높은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은혜가 KH국 가운데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노오 코타로

(오카야마 리버사이드교회 청년)



세상의 결과나 명예에 시선을 두고,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어떤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해외칼 세미나

영국



미주



변함없이 꾸준히 성된 고백



김형근 집사

합심으로 기도하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감동이 있기에 내일도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나은영 집사

‘은혜의 만조’를 경험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서영 집사

은혜의 최전선인 강단에 앉아 ‘특심’으로 풀충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창욱 집사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평안히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박효민 집사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명희 집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벅찬 감동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최경 집사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맡겨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하석 순장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이의준 순장

강단 초대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탁한영 순장

말씀을 강단에서 들으니 더욱 선명하게 저를 향한 하나님 음성으로 느껴져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거룩한 예배자들
ABAD 대정부



김경민

영원의 소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제 유한한 시간의 이유임을 확신했습니다.

김지혜

지금의 일터가 제게 맡기신 ‘선교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박강민

하나님보다 제가 원하는 응답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박경민

특세에 계속 전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특세에 전참하는 믿음의 5대를 이루실 약속을 신뢰합니다.

서지형

특세 첫날 본당에서 하나님과 단들이 마주 앉은 듯 만나 주셨고, 의무감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한나

특세에서 부른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이 제 삶을 붙들고 인도해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예랑

무던함이 영적 안일함이 되지 않도록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조예원

마지막 남은 연차로 참석한 그날은 제 인생 특세가 되었습니다.

진승엽

배가 뒤집힐 뻔한 순간에도 두 번이나 저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훈련과 생애 첫 특세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특새는 하나입니다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주제는 “성령의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영혼과 육신과 가정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강단초대

*오늘: 7천 기도용사 각 군단

*내일: 주일학교, 대학, 대청, 청년

강사소개

*오늘: 김지훈 목사 (LA 동양선교회)

“다윗의 승부수” (대상 18:1-13)

미첼 리 목사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 2:24-27)

*내일: 노희송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막힌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출 14:1-3, 21-31)

피터 릴백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명예총장)

“순례자의 기도” (시 134:1-3)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국제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1,400번 작성자분들께 후집회 이후 남1층로비에서 ‘특새굿즈’를 드립니다.

밀음1,2세대



깊은 말씀



종이와 볼펜

한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한글자한글자 꼭꼭 담아 쓰기



태블릿

태블릿으로 타이핑 치며
설교듣기



높은 찬양



카세트

카세트 늘어날 때까지
반복재생해서 은혜받기



유튜브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교회
은혜로운 찬양 듣기



뜨거운 기도



산기도

나무뿌리 뽕을 때까지
부르짖고 응답받기



SNS 기도방

긴급 기도제목을 나누고
화살기도로 함께 기도한다

특새 년센스 퀴즈

1. 4대째 운영하는 수선집은?

2. 전기기사가 쓰는 모자 이름은?



깊은 말씀

높은 찬양

뜨거운 기도

인증샷을 은혜게시판에 올려주시면 50명을 선정하여 특별굿즈를 드립니다!

2026 가을 특새 출석부

넷째날

“부흥의 물결,
제사장 나라,
축복의 근원”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제 310호 주후 2026년 10월 22일(목)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커뮤니케이션실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귀가 셔틀버스

출발시각은 6시 25분입니다.

밀물 같은
은혜강수
넘치도록
기록하자

은혜게시판



이번 특새 포스터를 예쁘게 색칠해주세요.